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한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8
4	讲义	57
5	퀴즈	78
6	보고서	82
7	자료	84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이 강좌의 목적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이 관찰된다.

이 강좌에서는 먼저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대북제재, 생활수준 등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북한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경협,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02

학습목표

- (1) 북한경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3) 북한경제 및 통일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설명할 수 있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 여러분은 북한경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의 북한경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해
2주차	해방 직후~1960년대의 북한경제
3주차	1970년~1990년대의 북한경제
4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경제개혁
5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시장화
6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대외경제관계
7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산업
8주차	대북제재
9주차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10주차	북한의 인구변동
11주차	남북경제협력
12주차	통일한국의 경제: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6

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대외경제관계

6-1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관계의 특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제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섯 번째 강의로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대외경제관계'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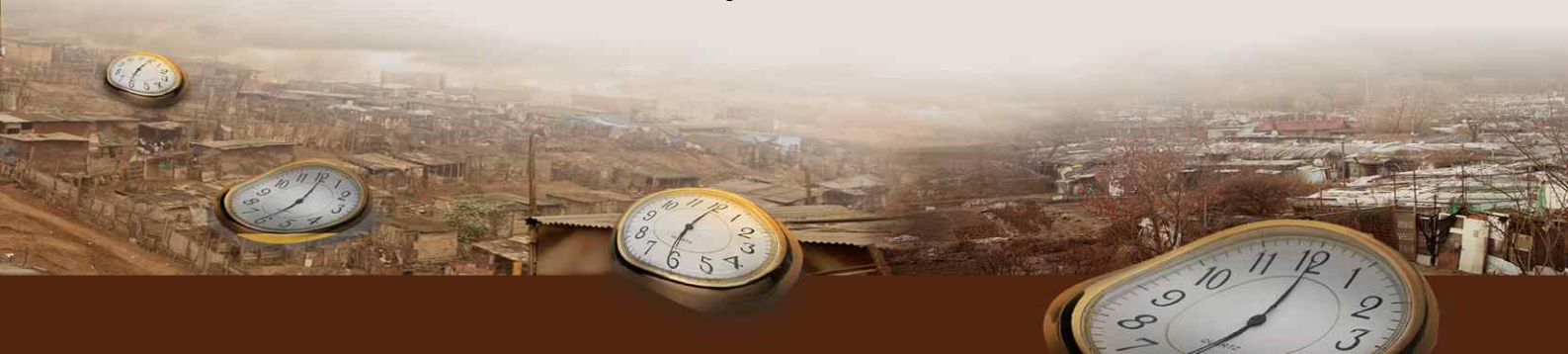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4주차 강의에서는 경제개혁에 대해 살펴보았고, 5주차 강의에서는 시장화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두 강의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외경제관계 중에서도 특히 대외무역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먼저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을 개관한 뒤,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는 대외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대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 추진 경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주차 강의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논의 시에도 제재와 관련하여 수출과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강의에서는 가급적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략 2015년경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북한 대외무역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그중에서도 대외무역은 북한경제를 들여다보는 매우 중요한 루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북한은 늘 자립경제 건설을 주장해왔고, 실제로 북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경제에서 대외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제재 강화 이전까지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대외 부문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출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자 북한경제가 크게 악화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외무역과 관련해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북한경제에 관한 통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역 부문의 경우, 비록 북한이 작성한 통계는 아니지만, 북한과 무역을 하는 주로 중국이 작성한 통계를 활용해 북한의 무역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은 중국에서는 수입으로 북한의 수입은 중국에서는 수출로 기록되니, 중국의 대북 무역통계가 있으면 북한 무역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역통계는 세부 품목별로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수출한 제품이나 수입한 제품을 살펴보면, 북한 산업, 북한 주민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무역이 북한경제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루트가 되어, 무역통계 등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무역 방식을 배우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경제 관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냉전 상황 속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품 생산능력이 떨어져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지속해서 극단적인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해 왔기에 대외무역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와 연료였습니다.

앞서 3주차 강의에서 1970년대 북한이 서방 국가로부터 차관 형태로 기계설비를 들여왔다가 오일쇼크를 만나 외채 문제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소 예외적인 부분이고, 북한은 주로 중국,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을 수입하려면 외화가 필요하니 수출도 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떠한 제품들을 주로 수출했을까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상품 생산역량이 떨어졌기에, 주로 단순한 상품들을 수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이나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 그리고 광물을 단순 가공해서 만든 제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수출품 구성은 최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냉전 상황 속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은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 간 거래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역 조건이나 물량 등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시장가격 대신 정부 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교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 방식을 협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 국가에 이롭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 물자를 싸게 수입하고 자국 물자를 북한에 싸게 수출하면 북한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원조로도 볼 수 있기에 원조성 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보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이 받던 원조성 무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련 붕괴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코크스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용 연료가 부족해지고, 비료, 철강 등의 생산이 줄어들어 산업 생산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북한경제가 1990년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위기 속에 대외무역도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측면의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이던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협정무역 방식 대신 시장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것으로 요구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뜰이나 소련으로부터 원조성 무역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중 무역이 모두 시장거래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국이 차관 형식으로 주고 나중에 탕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밀무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영 무역회사가 전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 주민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팔고 식량을 구해 오는 등 밀무역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무역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늘어난 밀무역은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밀무역 혹은 비공식 무역의 특성상 그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2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개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는 양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 국영 무역 회사들은 '와크'라고 불리는 수출입 쿼터를 배당받아 대외무역을 하며,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상부 기관에 상납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무역 거래는 대부분 시장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원유 수입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소 예외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먼저 전체적인 추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무역수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 제시된 통계에는 남북교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2000년 5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5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3년에는 32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을 보겠습니다. 수입은 2000년대 초반에는 15억 달러 수준이었다가 2010년경에는 25억 달러 정도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45억 달러에 육박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와 빠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수입도 그 이후 다소 감소했는데, 수출과 마찬가지로 제재 강화로 인해 2018년부터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수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제재 이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8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북한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재 강화 이후에는 적자 규모가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대략 10억 달러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는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10억 달러 적자는 사소한 규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 규모가 컸던 해에도 8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기준에서 보면 매년 꽤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의 무역 규모가 2010년대 들어와 2013년~2014년경까지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기에 수입 증가도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내적 요인은 무역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무역을 자유화·분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무역회사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허가만 받으면 어떤 기관, 기업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역 거래를 허가하는 요건도 완화해 주었으며, 무역 거래 당사자에게 무역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외적 요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2010년대 무역 증가의 대부분은 북·중 무역의 확대와 관련된 만큼 여기서는 북·중 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탄 등의 수입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 중국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위탁가공교역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 중국 수요 증대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던 북한 무역 규모가 왜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수출은 2013년, 수입은 2014년을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북한 무역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당시에도 북한의 무역 자유화·분권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중국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의 석탄 등 광물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 여파로 국제원자재 가격도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이 무역수지 적자 상태를 어떻게 장기간 지속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북한이 다른 대외경제 관계를 통해 외화를 획득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공식 무역 외에도 호시무역, 무기류 및 귀금속 등의 불법적인 수출, 어업권 판매, 해외 건설사업 수행, 해외 파견 노동자가 보내오는 송금, 수출 리베이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외화를 획득해 왔으며, 결국 이렇게 획득한 외화로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다양한 외화획득 경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북한 무역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중 무역 통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3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 분석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북한 무역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한의 대중 수출을 산업별로 나누어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업 수출액은 2010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2013년 18억 4,000만 달러로 3년 사이 10억 달러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3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출 규모가 2010년 4억 9,000만 달러에서 2014년 11억 9,000만 달러로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광업에 비해서는 변화폭이 적습니다.

이처럼 2010년대 초반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석탄, 그중에서도 무연탄과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입니다. 그림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규모와 대중 의류 수출 규모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석탄 수출액은 2010년 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11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2013년 13억 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류 수출액은 2010년 1억 9,000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 수준인 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석탄 수출의 광업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 즉 광업 수출 증가액 대비 석탄 수출 증가액 비율을 구해보면 100%가 넘습니다. 광업 수출 증가 규모보다 석탄 수출 증가 규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류 수출의 제조업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구해보면 97%입니다. 이는 2010년대 북한의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는 석탄과 의류 수출이 급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석탄과 의류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부터 보겠습니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내 석탄 수입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주로 수출한 무연탄의 경우, 중국은 2000년에는 여러 국가로부터 21만 톤을 수입했는데, 2010년대 초반이 되면 3,000만~4,000만 톤을 수입하게 됩니다.

10여 년 사이 중국의 무연탄 수입 규모가 2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무연탄의 국제 시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은 중국의 무연탄 수입 가격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0년 10달러 전후였는데, 상승세를 보여 2010년대 초반에는 100달러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여 년 사이 무연탄 가격이 열 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무연탄 수요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무연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무연탄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이 수출을 늘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석탄 수출액이 급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류 수출에 대해 보겠습니다. 의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내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 있습니다. 표는 중국 주요 지역과 북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2005년에는 개성공단이 50달러로, 중국 동북 3성, 즉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평균보다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중국 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7년에는 동북 3성 최저임금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후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2015년에는 개성공단의 거의 3배 수준으로까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과 중국 간의 임금 수준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임금이 빠르게 오르자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위탁가공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 생산이 증가한 것은 2010년 5.24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남북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남한 기업과 위탁가공 교역을 하던 북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희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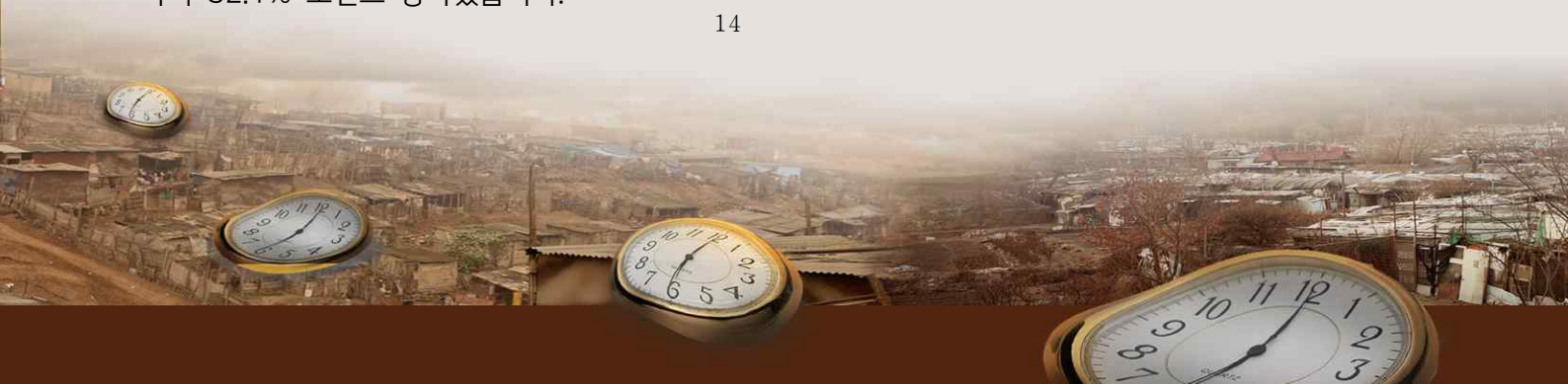
이에 한국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한 기업과 위탁가공 교역을 하던 북한 기업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섰고,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2010년대 초반 북한의 수출은 석탄과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수출의 질적 개선 여부는 수출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서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북한의 제조업 부문 수출을 수출 산업의 기술 수준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산업은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항공 등의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면 고위기술로 분류될 것이고, 음식료, 의류, 목재 등의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면 저위기술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0년 이후 수출에서 저위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위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3.6%에서 2015년 85.7%로 5년 사이 32.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다음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중저위기술 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37.8%에서 8.1%로 30%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고, 중고위와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제조업의 수출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조업보다도 광업의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광업의 수출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광업 수출품은 대부분 1차 산품으로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수출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품인 석탄과 낮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인 의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니, 이러한 질적 하락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 수출이 증가하자 외화 사정이 개선되어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용도의 품목들이 주로 수입되었을까요?

그림은 2010년~2015년 북한의 대중 수입을 사용 용도별(BEC: Broad Economic Categories)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전에 사용 용도별 분류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별로 분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수입품을 분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1차 산품,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로 수입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산품이나 중간재는 대체로 산업 생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철강, 비료, 연료, 기계 부품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비재는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고 소비 용도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 신발, 화장품,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본재에는 기계설비, 산업용 운송장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럼 수입의 전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보면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2010년대 초반에는 1차 산품이 많았는데, 2013년 이후에는 소비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량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으로 소비재의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본재의 수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00년대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2015년 연평균 수입액이 5억 8,000만 달러인데, 2000년대에는 1억 2,000만 달러였습니다. 2000년대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재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0년~2015년 북한의 주요 대중 자본재 수입액을 누적해서 가장 수입액이 큰 품목부터 나타낸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수입액이 7.35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 컴퓨터 등 자동자료처리기계 수입액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건설기계, 광업용 기계, 전력 관련 설비 등의 수입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재 수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상품과 중간재를 합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차 상품과 중간재는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함께 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림은 1차 상품과 중간재를 산업용 음식료품, 산업용 소재, 연료, 부품으로 세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중간재 수입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산업용 소재입니다. 2010년 7억 5,500만 달러에서 2014년 14억 2,3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소재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의류 위탁가공에 사용되는 섬유·직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의류 수출은 위탁임가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용 소재 수입 증가분 중 45% 정도는 섬유·직물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0년~2015년 북한의 소비재 수입을 가정용 음식료품, 내구 소비재, 준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로 세분해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내구 소비재는 가구, 가전제품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재이고, 비내구 소비재는 단기간 사용하는 소비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소비재 수입도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5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음식료품, 내구 소비재 등 세부 항목별로 보아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가정용 음식료품 수입 규모는 2010년 1억 4,000만 달러에서 2014년 3억 6,000만 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내구 소비재는 2010년 8,5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500만 달러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4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 분석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역은 2000년대부터,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외무역 확대는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무역 증가는 생산 증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초반 북한경제는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대외무역의 확대입니다.

무역 증가는 생산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출 품목별로 이 효과의 크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석탄과 같은 광물 수출 시에는 이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 의류 수출의 경우에는 생산 증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의류의 경우 위탁가공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위탁가공의 경우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섬유를 수입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의류 수출의 경우 수출액에서 중간재 수입액을 뺀 부분만큼만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의류를 8억 달러 수출했고, 이를 위해 중간재를 5억 달러어치 수입해 왔다면, 실제 생산 증대는 8억 달러가 아니라 그 차액인 3억 달러만큼 이루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 증대 효과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증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 수입 증대는 북한 산업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장기간 자립경제를 지향하여 기계공업 등을 발전시키려 해왔지만, 여전히 자본재 생산역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이 특히 중요합니다.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수입 증가도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에 필요한 자원 중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것도 많으며, 또 자원이 있어도 기술이 부족해 양질의 중간재를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수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 구매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증가도 소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재 수입 증가 시 소비재 공급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북한제품에 비해 질이 우수한 상품이 공급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품목이 다양해진다는 점도 소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증가는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 중 일부는 내수용으로 국내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들의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북한 주민의 소비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주차 강의에서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외무역 증대가 시장화를 촉진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시작된 북한의 시장화는 2010년대에도 더욱 진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장화가 진전된 것에는 통신수단과 운송수단이 확대 보급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휴대전화와 화물자동차, 버스 등의 수입이 증가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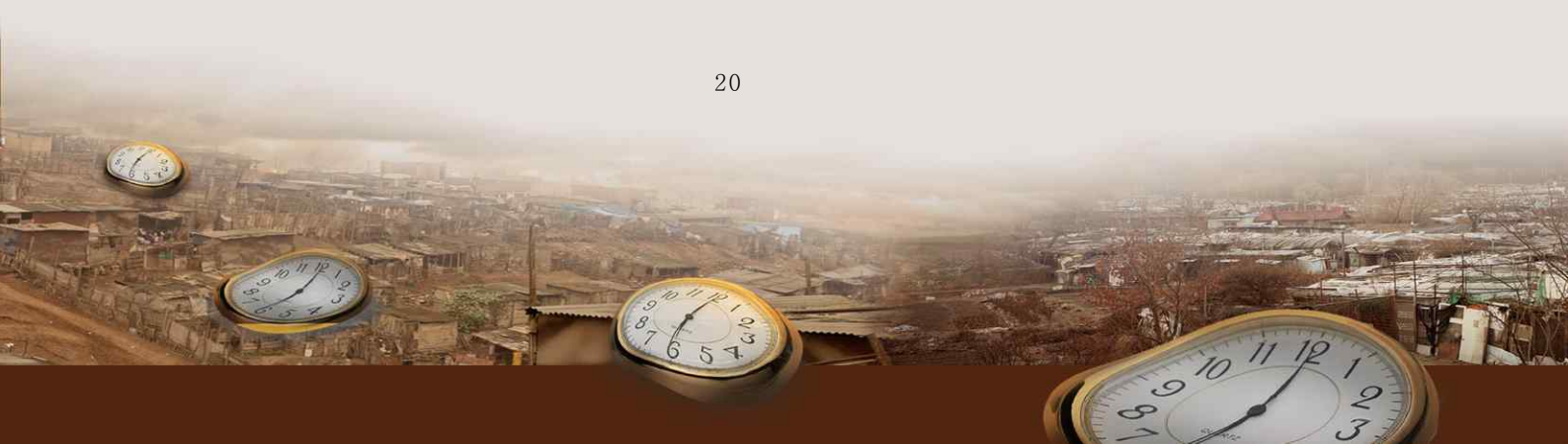
2010년대 휴대전화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림은 2001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휴대전화 대수를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대부분 수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5년까지만 보면 2010년대 대략 440만 대 정도가 수입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 유통이 더 활발해지고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 화물자동차, 버스 등의 수입 증가는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이 전국적으로 통합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개발 추진과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5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개발 추진과 성과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개발 추진과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아직 뚜렷한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외자 유치를 위해 북한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경험을 모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특구라는 특정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형태로 외자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개방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만 개방하면, 그 지역에만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질서가 북한 내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는 총 다섯 개의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특구들은 대체로 중국 또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함경북도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입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금융 중개 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목표하에 1991년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세운 투자유치 목표에 비해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2002년에는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이렇게 세 개의 경제특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경우, 입법, 사법, 행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북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형태로 개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신의주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한국 자본 단독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계획되었고, 실제 투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08년 8월 이후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2016년 초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12주차 강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도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특구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개발 사업의 핵심 지역은 기존의 나선경제무역지대와 2010년 새로 지정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였습니다. 나선시의 경우, 2010년 특별시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2012년에는 도문-나진 간 철도 보수, 국경 다리 건설, 무산철광 개발 등 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12월에는 경제특구 개발을 주도해 온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경제특구 개발은 정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 당국은 경제특구와 별도로 경제개발구 개발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었고, 관련된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압록강 경제개발구, 만포 경제개발구 등 경제개발구 13개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개에 가까운 경제개발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북한은 201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제개발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금강산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개발구 개발에 큰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재 강화로 인해 2017년 하반기부터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금지된 것이 경제개발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은 북한 당국이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개발구 사업은 북한이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경제특구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외자 유치 전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개발구는 소규모의 특화된 경제지대라는 점에서 기존 경제특구와 차이를 보입니다. 과거 개발되었던 경제특구는 면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경우 면적이 470km²로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도 면적이 28km²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 경제특구는 대체로 생산, 가공, 상업,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개발구는 대체로 규모가 작습니다. 대부분의 경제개발구 면적은 5km² 이하입니다. 또 목표 외자 유치 규모도 1억 달러 내외 수준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달리, 많은 경제개발구는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의 분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최근까지 개발된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경제개발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개발구는 모든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도별로 차이가 있어 적게는 두 개, 많게는 대여섯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구의 명칭을 보시면 '경제개발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송림수출가공구', '청남공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들은 특화된 분야에 따라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구가 경제특구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지방 주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경제특구는 모두 북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구는 지방에서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개발구 명칭은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 붉은색은 중앙급을, 그리고 초록색은 지방급을 나타낸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급은 9개, 지방급은 19개로 중앙급보다 지방급이 더 많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주도해서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지방이 지닌 비교우위를 활용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중앙정부가 다수의 소규모 경제지대를 개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과 정보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에, 이처럼 지방 주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용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구가 지닌 세 번째 특징은 북한 기업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경제개발구에 대해서는 북한 기업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기업이 개발구 내에 위치하게 될 경우, 경제지대는 더 이상 주변과 분리된 하나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은 기존 경제특구와 차별화되는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개발구 개발 정책은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없었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높은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졌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투자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정이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 북한이 투자자산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았던 선례들도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해외 투자자들은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한국 정부의 많은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이 개성공단 사례를 참고해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법을 보면, 투자자가 투자 지역의 인프라를 직접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프라 건설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해외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역은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 간 거래와는 다른 형태인 협정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역 조건이나 물량 등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무역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부분 협정무역 방식 대신 시장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는 체제였지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밀무역에 나서 밀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역 규모가 2010년대 들어와 2013년~2014년경까지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무역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수출에 유리한 대외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10억 달러 내외 수준의 무역적자를 꾸준히 기록해 온 것도 북한 무역의 특징적 양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수출, 해외 건설사업,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금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외화를 획득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출부터 보면, 2010년대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석탄과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석탄은 중국 내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과 국제 시세도 빠르게 증가한 결과 수출이 급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중국 내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북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중국 내 기업이 증가한 결과 수출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석탄, 의류와 같은 1차 산품이나 단순 가공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출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질적 하락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중 수입을 사용 용도별로, 즉 제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1차 산품,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로 분류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본재의 경우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이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재의 경우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수입 규모가 70%나 증가했는데, 의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섬유·직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2010년대 전반기에 소비재 수입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생산증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출 증가도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었고, 자본재, 1차 산품, 중간재 수입 역시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소비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출 증가는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소비재 수입 증가는 소비의 양적,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증가 역시 내수용 제품생산을 통해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시장화를 촉진했습니다. 휴대전화와 화물자동차, 버스 등의 수입 증가는 시장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촉진되도록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입니다. 북한은 중국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특구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특구는 총 다섯 곳에 개발되었는데, 개성공단 정도만 성과가 나타났고, 그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경제특구 대신 경제개발구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개발구는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이로는 규모가 작고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의 분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 지방 주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 북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30개 가까운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었는데, 투자유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개발구 사업이 제재 강화 속에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제재가 없었다고 해도 성과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에 투자된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점, 수익성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점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네 번째 순서로 북한의 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의 강의를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6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Foreign Economic Relations

6-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til the 1990s

Hello. I am Hong Jea Hwan for the lecture series, Past and Present of North Korean Economy. This is the sixth lectur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Foreign Economic Relations.

We have discussed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in the last two lectures. We looked at economic reform in the 4th lecture and marketization in the 5th lecture. We checked what changes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undergone since the 2000s through these two lectures.

This lecture is on the third topic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and we will look at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I will focus on foreign trade in particular in foreign economic relations.

First, let's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til the 1990s. Next, after an overview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after the 2000s, we will analyze North Korea's exports and imports in detail in the 2010s. Lastly, we will discuss the impact of expanded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Foreign trade accounts for many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but other fields also exist. So, we will first discuss foreign exchange and then discuss North Korea's experience in developing spe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For your reference, we will discus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8th lecture. The key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to control North Korea's exports and imports. Thus, we need to talk about exports and imports to discuss sanctions.

Considering this, we will exclude matters related to sanctions as much as possible in this lecture. This lecture will examine North Korea's foreign trade, focusing on the situation up until 2015.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especially foreign trad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routes to look into the North Korean economy. There are two main reasons.

First, North Korea has always insisted on a self-sufficient economy, and its dependence on trade has been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sector in the North Korean economy is not low.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sector had grown even more in the Kim Jong-un regime as the trade volume had increased significantly until sanctions were strengthened. After sanctions were strengthened and imports and exports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border was closed to prevent COVID-19, the North Korean economy deteriorated significantly.

Second, we can obtain relatively abundant and reliable statistics in relation to foreign trade compared to other fields. As I have often mentioned, there are very limited statistic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case of trade, we can use statistics compiled by China to understand the trade situation in North Korea, although the statistics are not made by North Korea. North Korea's exports are recorded as imports in China, and North Korea's imports are recorded as exports, so we can grasp North Korea's trade situation through China's statistics on trade with North Korea.



In addition, we can check detailed items in the trade statistics, so a more detailed analysis is possible. By examining the products exported or imported by North Korea, we can understand various aspect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industry and consumer life.

Like this, foreign trade has been an important route to look into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using trade statistics. Today, we will examin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se studies. Now, let me start the lecture.

Before examining the situation after the 2000s, let's take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til the 1990s, focusing on foreign trade. Learning the trade pattern of this period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situation after the 2000s.

Foreign economic relations of socialist countries were limited in the past. During the Cold War, trade was mainly done between socialist countries but transactions were not active because the socialist countries could not make high-quality products due to the lack of production capacity.

Because North Korea continued to pursue an extremely self-sufficient economy, foreign trade did not play a large role. This does not mean that foreign trade was not importan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ome items must be imported. They were machinery and fuel.

In the 3rd lecture, I mentioned that North Korea brought in machinery and equipment in the form of loans from Western countries, then encountered the oil crisis, and suffered from foreign debt in the 1970s. This was an unusual case and North Korea mainly imported from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To import items essential to the economy, you need foreign currency and you need to export to earn foreign currency. Then, what products did North Korea mainly export? 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s production quality was not good, so it mainly exported simple goods.

For example, it exported primary products such as minerals o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products made by simply processing minerals. I'll come back to this later, but the level of export products hasn't improved much until recently.

I mentioned that trade was mainly between socialist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The thing is, trade between these socialist countries was different from trade between market economy countries. They decided on trade terms and quantities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governments. In other words, trade was done at a price agreed upon between governments instead of at market prices. This kind of trade is called trade by agreement.

In this case, trade may be beneficial to one country. For example, if China imports North Korean goods at high prices and exports its goods to North Korea at low prices, North Korea can benefit from it. This can be seen as a kind of aid, so it is also called trade-type aid. It seems that North Korea benefited from this trade with socialist countries.

Then, as the socialist bloc collapsed in the late 1980s, the trade-type aid decreased. It was most affected b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was importing oil and coke from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imports from the Soviet Union plummeted.

As a result, transportation fuel became scarce, and the production of fertilizers and steel decreased, hindering industrial production. As I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this was one of the reasons the North Korean economy faced a crisis in the 1990s.



In the 1990s, foreign trade shrank amid the economic crisis. Two notable changes emerged during this situation.

First, the stance of China,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trade partner, changed. It demanded to trade in a market transaction method instead of the trade by agreement they had been doing so far. North Korea could not easily accept this because it was not receiving trade-type aid from the Soviet Un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had grown.

So, not all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hanged to a market transaction trade. In the case of crude oil, the exchange was done how China provided it in the form of a loan, and North Korea wrote it off later. North Korea's crude oil imports from China appear to be continuing similarly to this day.

Second, the smuggling trade increased significantly. North Korea's foreign trade was supposed to be exclusively handled by state-run trading companies under the system the state monopolizes the trade.

Then, economic difficulties intensified in North Korea and people had to survive by themselves, so residents of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tarted smuggling by crossing the border to China to sell goods and find food. The same goes for companies that faced the crisis. They tried to make money by trading through informal routes.

Smuggling trade, which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continued to increase thereafter. Due to the nature of smuggling trade or informal trad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scale, but it is estimated to be considerable.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til the 1990s. After a break, we will discuss North Korea's foreign trade in general after the 2000s.



6-2 Overview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since the 2000s

Hello again. Before the break, we hav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til the 1990s. Now, let's take an overview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after the 2000s.

Even after the 2000s, the state continued to monopolize the trade. In North Korea, state-owned trading companies engage in foreign trade with an allocated import and export quota called 'Waqu' and pay some of the foreign currency earned to higher authorities.

However, most trades became market-based unlike before. The import of crude oil was an exception. Its trade was done in the unusual way I mentioned even after the 2000s.

So, how has North Korea's trade volume changed since the 2000s? Let's first look at the overall trend.

The graph shows the trends of North Korea's exports, imports, and trade balance since the 2000s. By the way, the statistics presented in this graph do not reflect inter-Korean trade. Both exports and imports have shown an increasing trend since 2000, but have declined since the mid-2010s.

Export was a little over \$500 million in 2000, but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n, reaching \$1.5 billion in 2010 and \$3.2 billion in 2013. After the peak in 2013, it decreased, especially after 2017, wh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re strengthened.



Let's look at the import. Import was around \$1.5 billion in the early 2000s, but increased to around \$2.5 billion in 2010 and \$4.5 billion in 2014. The rapid increase in the 2010s is noticeable.

Import has also declined after that; the decline has been steeper since 2018 due to tougher sanctions like the export. The decrease is smaller than that of exports, though.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se changes after the sanctions in the 8th lecture.

If you see the graph, North Korea's trade balance continues to record deficits. After the sanctions were strengthened, the deficit exceeded \$2 billion. It was around \$1 billion before that.

A deficit of \$1 billion may look insignificant by the standards of South Korea, which trades more than \$1 trillion a year. However, considering that North Korea's trade volume did not exceed \$8 billion even in the year when it was large, North Korea has seen a fairly large deficit every year.

Let's look at a few things related to this graph.

First, North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quite rapidly from the 2010s up to 2013 - 2014. Why? Considering that increase in imports was possible by the increase in exports, I will focus on exports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factor is that the regime implemented a policy allowing trade expansion. In the early days of Kim Jong-un's rule, North Korea took measures to liberalize and decentralize trade. For example, only trading companies were allowed to do trade in the past, but other institutions and companies became able to do that if they get permission. It also eased the requirements to authorize trade transactions and granted traders some power to determine trade prices.



Let's look at external factors. Since most of the trade increase in the 2010s wa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North Korea-China trade, I will focus on North Korea-China trade.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has increased the imports of coal, the rapid rise in labor costs in China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consignment processing trade, and these increases in Chinese demand raised the price of raw materials around the world. I will come back to this later.

Second, we need to see why North Korean trade volume, which has grown since the early 2000s and peaked in 2013 and 2014, began to decline. Looking at the graph, North Korea's exports peaked in 2013 and imports peaked in 2014, before declining. In other words, North Korean trade began to decline even before sanctions were strengthened. Why?

North Korea was continuously promoting trade libe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t that time. Therefore, it is related to external factors. The Chinese economy slowed down, and China's import of coal and other minerals decreased due to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raw material prices also fell as a result.

Third, we need to see how North Korea was able to maintain a trade deficit for a long time. This was possible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acquiring foreign currency through other economic relations.

In addition to official trade, North Korea has been acquiring foreign currency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border trade, illegal exports of weapons and precious metals, sales of fishing rights,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remittances from workers dispatched overseas, and export rebates. North Korea was able to offset the trade deficit with foreign currency earned through these. I will skip detailed explanations about foreign currency earning routes due to time constraints.



So far, we have discussed the North Korean trade trend and characteristics since the 2000s. After a break,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changes in exports and imports, focusing on the situation in the 2010s. Since trade with China accounts for more than 90% of North Korea's trade in the 2010s, we will continue the discussion centering on North Korea-China trade statistics.



6-3

Analysis of North Korea's Import and Export in the 2010s

Hello again. Before the break, we've discussed the North Korean trade trend and characteristics since the 2000s. Now,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changes in exports and imports, focusing on the situation in the 2010s.

Let's first look at the export. The graph shows North Korea's exports to China, by industry. You can see the export growth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has been remarkable. Mining exports increased from \$680 million in 2010 to \$1.84 billion in 2013, more than \$1 billion, nearly tripling in three years. Then, it has since declined to \$1.3 billion in 2015.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exports increased by 2.4 times in 4 years from \$490 million in 2010 to \$1.19 billion in 2014. It declined a little in 2015, but the drop was small compared to mining.

This increase in mining and manufacturing exports in the early 2010s was thanks to large-scale export of coal, particularly anthracite, and clothing. The graph shows the trend of North Korea's coal and clothing exports to China.

Coal exports were about \$400 million in 2010, soared to \$1.15 billion in 2011, and peaked at \$1.39 billion in 2013, before declining. Clothing exports have steadily increased from \$190 million in 2010 to \$800 million in 2015, four times the amount in 2010.

The contribution of coal exports to mining export growth between 2010 and 2015, the ratio of coal export growth to mining export growth, is over 100%. That is, the increase in coal exports was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mining exports.



Similarly, the contribution rate of apparel exports to the increase in manufacturing exports is 97%. This tells us that the increase in North Korea's mining and manufacturing exports in the 2010s is the result of a sharp increase in coal and clothing exports.

So why did the coal and clothing exports surge? I explained this in general, so I'll go into more detail.

Let's start with coal. As China's economy grew rapidly, the demand for coal imports in China increased. In the case of anthracite that North Korea mainly exported, China imported 210,000 tons from various countries in 2000 and then imported 30 to 40 million tons in the early 2010s.

China's anthracite imports have increased nearly 200 times over the past 10 years. Such a demand increase in China, which has a large economy, inevitably affects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of anthracite coal.

This graph shows China's anthracite import price trend. It was around \$10 in 2000. Then, it shows an upward trend, reaching around \$100 in the early 2010s. The price of anthracite coal has risen tenfold over the past 10 years.

As the demand for anthracite in China soared, the price of anthracite rose rapidly. North Korea, which borders China and has abundant anthracite reserves, was able to increase exports and its coal exports soared.

Let's look at apparel exports. The increase in apparel exports was because of the rapid rise in labor costs in China. This table compares the minimum wage in major regions of China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f you see the year 2005, the minimum wage was 50 dollar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almost 40% higher than the average of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namely Liaoning, Jilin, and Heilongjiang.



Since then, wage levels in China have risen relatively rapidly. Looking at the table, in 2007, the minimum wage in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began to outpace that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ising to almost three times in 2015.

In additi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known for relatively high wages in North Korea. Thus, the wage ga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even greater than this.

As wages in China soared rapidly, Chinese firms turned their attention overseas and began to actively engage in clothing production on commission using North Korea's low-wage labor force in the 2010s. The increase in clothing production on commission in the 2010s is related to the May 24 measures in 2010.

In the 2000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active and many North Korean companies were engaged in trade through consignment processing with South Korean companies. Howev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occurred in March 2010. 46 sailors were killed in this incid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spended al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cept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rough the May 24 Measures. North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processing on commission with South Korean companies went out to find new customers and started trading with China.

Like this, North Korea's exports in the early 2010s expanded significantly in quantity thanks to the strong coal and clothing exports. Then, has the quality of exports improved as well?

The qualitative improvement can be confirmed by examining how the export industry is structured. If exports increase in an industry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technology, you can say that the quality of exports has improved.



This graph shows North Korea's expor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y the level of technology. Industries are broad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high technology, mid-to-high technology, low-to-mid technology, and low technology. For example, exports of semiconductors and aviation will be classified as high-tech, while exports of food and beverage, clothing, and lumber will be classified as low-tech.

If you look at the graph, the share of low-tech industries in export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10. The share of low-tech industries increased from 53.6% in 2010 to 85.7% in 2015, a 32.1% increase in 5 years.

The share of mid-to-low tech industries decreased by nearly 30% from 37.8% to 8.1% over the same period, and the share of mid-to-high tech and high-tech industries remained very low and did not change much.

This is the analysis of manufacturing exports. By the way, North Korea's mining industry accounts for more exports than manufacturing. So, we should also consider mining exports, which are mostly primary products and do not require a high level of technology.

In summary, North Korea's exports increased rapidly in the 2010s, but its quality did not improve but rather deteriorated. In some way, this qualitative decline was inevitable because exports increased mainly in coal, a primary product, and clothing, a product requiring low-level skills.

Now let's analyze the imports. Increased exports in the 2010s resulted in an improvement in the foreign currency situation and imports. Then, what kind of products were imported?

The figure shows North Korea's imports from China from 2010 to 2015 by use (BEC: Broad Economic Categories). Before explaining the graph, let me explain what BEC is.



It literally means that imports are classified based on where this product will be used. According to the BEC, imports can be divided into primary, intermediate, consumer, and capital goods.

Primary or intermediate goods are generally used in industrial production, such as plastics, steel, fertilizers, fuels, and machine parts. Consumer goods are products that can be sold for consumption without further processing, such as clothing, shoes, cosmetics, and home appliances like TVs and refrigerators. Capital goods include machinery and industrial transportation equipment.

Now, let's look at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imports. Intermediate goods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each year. Primary products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in the early 2010s, but after 2013, consumer products accounted for a larger share.

Looking at the increment,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increased the most, followed by imports of consumer goods. Imports of capital goods also showed an increasing trend. It is not particularly shown in the graph, but if you compare it to the 2000s, you can see a significant increase. The average annual import was \$580 million from 2010 to 2015, but it became \$120 million in the 2000s. Compared to the 2000s, this is a nearly fivefold increase.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each. Let's start with capital goods.

The figure shows the cumulative amount of North Korea's major public capital goods imports from 2010 to 2015, starting with the largest import value. Truck imports are the largest at \$735 million, followed by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such as computers.

In addition, it seems that imports of construction machinery, mining machinery, and power-related equipment were relatively high. I will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capital goods imports later.



This time, let's examine primary and intermediate goods together. Primary products and intermediate products do not have many different uses, so we can examine them together. The graph shows primary products and intermediate goods subdivided into industrial food and beverages, industrial materials, fuels, and parts.

As you can see, the import volume of intermediate goods increased significantly between 2010 and 2014. It's increased by about 70%. The largest increase was in industrial materials. It nearly doubled from \$755 million in 2010 to \$1.423 billion in 2014. The largest increase in industrial material imports was attributabl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imports of textiles and fabrics used for clothing production on commission, as apparel exports increased significantly.

As mentioned earlier, North Korea's clothing exports were made through processing on commission, so as exports increased,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naturally increased. Calculated, about 45% of the increase in imports of industrial materials between 2010 and 2015 was due to the increase in imports of textiles and fab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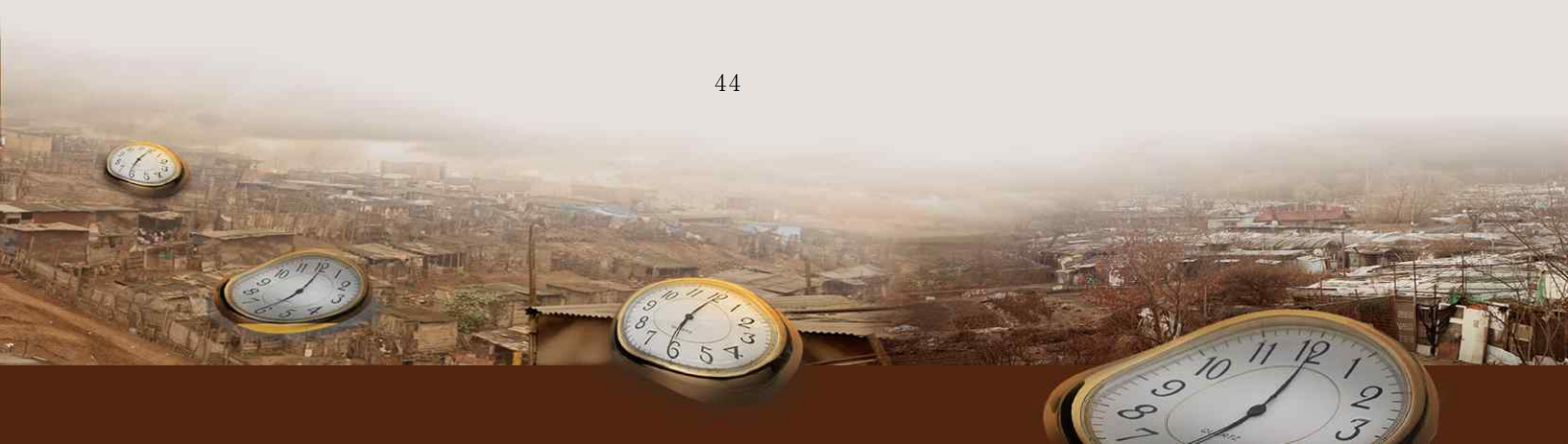
Lastly, let's look at consumer goods. The graph shows North Korea's consumption goods imports from 2010 to 2015, by household food and beverages, durable consumer goods, semi-durable consumer goods, and non-durable consumer goods. Durable consumer goods are products that are used for a long time, such as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and non-durable consumer goods are those that are used for a short time.

Looking at the graph, imports of consumer goods show the same pattern as intermediate goods. It increased rapidly until 2014 and then decreased in 2015. A similar pattern is observed when looking at detailed items like household food and beverages and durable consumer goods.



If you look at the figures, imports of household food and beverage imports increased more than 2.5 times from \$140 million in 2010 to \$360 million in 2014, and imports of durable consumer goods doubled from \$85 million in 2010 to \$185 million in 2014.

So far, we have studied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imports and exports in the 2010s. After a break, we will discuss the impact of this expansion of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6-4

Impact of Foreign Trade Expans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Hello again. Before the break, we have studied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imports and exports in the 2010s. Now, let's examine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s trad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2000s, especially in the 2010s. Then, how did this expansion of foreign trade affect the North Korean economy?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aspects.

First, increased trade seems to have helped increase production. The North Korean economy seems to have grown slowly but stably in the early 2010s, and one of the main factors is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Trade increase can help production increase in two ways. If exports increase, production increases while making export products. However, the size of this effect is different for each export item.

Looking at North Korea's major exports, this effect is significant when exporting minerals such as coal.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ion increase effect is not large when exporting apparel. There is a difference because clothing is produced through processing on commission.

For processing on commission, you need to import textiles from China to manufacture export products. Thus, only the portion of exports minus the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was produced in North Korea in the case of clothing exports. For example, if North Korea exported \$800 million of clothing and imported \$500 million of intermediate goods, the actual increase in production would not be \$800 million, but is the difference, \$300 million.



The production increase effect can be caused by an increase in imports as well as exports. An increase in capital goods imports can be of great help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North Korean industrial facilities. North Korea has long sought to develop its machinery industry in pursuit of a self-sufficient economy, but its capacity to produce capital goods is still poor, so capital goods imports are very important.

An increase in imports of primary or intermediate goods can also help boost production. There are many resources necessary for the industry that North Korea doesn't have and it cannot produce high-quality intermediate goods due to a lack of technology even if there are resources. These can be supplemented through imports.

Second, the increase in trade seems to have helped improve the consumption level of North Koreans. Purchasing power can increase if export increase improves people's income level.

In addition, increasing imports of consumer goods also help improve consumption levels. An increase in consumer goods imports not only increases the supply of consumer goods but also supplies products with the superior quality compared to North Korean products.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of supplied items also helps improve consumption levels.

I mentioned that increase in imports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could lead to a production increase. However, some of the products made through this can be supplied inside the country for domestic use. This, too, will help expand residents' consumption.

In fact, the consumption level of North Korean residents seems to have improved in general in the 2010s. We will review this in detail in the 10th lecture.

The third impact of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hat it has promoted marketization.



As I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marketization began in the 1990s and has progressed further in the 2010s. The expansion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mean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rketization. And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import of mobile phones, trucks, and buses increased.

In the 2010s, mobile phone import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graph shows the number of mobile phones imported from China since 2001, and you can see most of them were imported between 2010 and 2017. Let's see up to 2015. About 4.4 million units were imported in the 2010s.

The spread of mobile phones must have generated the effect of making information distribution more active and lowering the cost involved in transactions, called transaction costs in economics. And this must have promoted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increase in imports of trucks and buses seems to have helped to activate the market by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people and to integrate the market nationwide.

So far, we've discussed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a break, we will take a look at the promotion and performance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6-5

Promotion and Performance of Special Economic Zone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North Korea

Hello again. Before the break, we've discussed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Now, we will take a look at the promotion and performance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So far, we have mainly focused on foreign trade. When discussing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I have to mention that North Korea has been making efforts in its own way to attract foreign capital. Of course, such attempts did not lead to clear results, but we need to know what kind of efforts North Korea has made to attract foreign capital.

North Korea's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have been made in the form of copying China's early experience of reform and opening. It tried to attract foreign capital by opening only certain areas called special economic zones than opening all of North Korea. This seems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opening is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but it may also pose a threat to the North Korean regime.

If you open a special zone only, you can arrange an institutional device favorable for foreign companies only in that area by making it into an 'island', thereby preventing the spread of capitalist economic order to other areas in North Korea while attracting foreign companies. North Korea probably considered this and pursued the strategy to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As you can see on the map, five special economic zones existed before the Kim Jong-un regime came into power. Special economic zones focused on attracting investment from China or South Korea.



The Rajin-Sonbong Special Economic Zone was first established in North Hamgyong Prov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1 to carry out functions such as transit trade, export processing, tourism,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However, the performance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investment attraction target set by North Korea. In 2002,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July 1 Measures, three special economic zones were developed: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nd Mount Kumgang Tourist District.

A development plan for the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was very unconventional by North Korean standards, such as granting autonomy in relation to legislation,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However, the plan came to a halt when Yang Bin, an overseas Chinese businessman who was appointed as Shinuiju's first chief executive, was arrested in China for tax evasion and sentenced to 18 years in priso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nd Mt. Kumgang Tourist District were planned to be developed solely with South Korean capital, and actual investment was made. However, the Mt. Kumgang tourism business was suspended after August 2008 when a tourist was shot to death,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was suspended in early 2016 when North Korea conducted its fourth nuclear test. We will look into these in detail in the 12th lecture.

Even in the early days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showed an active attitude toward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It was especially involved in the joint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with China. The core areas of the development project were the existing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the Hwanggumpyong-Wihwado Economic Zone, newly designated in 2010. In addition, Rason City was upgraded to a special city in 2010.



In 2012, North Korea and China showed active moves by agreeing to promote six projects, including the repair of the Tumen-Rajin railway, the construction of a border bridge, and the development of the Musan Iron Mine. However, as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in early 2013 and Jang Seong-taek, who had led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was executed in December, the development came to a standstill.

In the midst of this, the North Korean regime began to develop economic development zones separately from special economic zones. In May 2013,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was enacted, and several related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cluding the Yalu River Economic Development Zone and Manpo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November 2013, nearly 30 economic development zones have been established so far.

Until about the first half of 2015, North Korea was quite enthusiastic to attract investment in the EDZ. In May 2015, an investment briefing session for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was held at Mt. Kumgang.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since then. In particular, the ban on joint ventures with North Korea from the second half of 2017 due to strengthened sanctions seems to have served as a decisive factor in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he EDZ.

Like this, the North Korean regime initiated the EDZ development project enthusiastically, but it did not lead to any results.

By the way, the EDZ project differs from the special economic zones that North Korea has promoted in several respects. We can identify the change i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through these differences,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EDZ development project.



First, economic development zones differ from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 in that they are small, specialized economic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that were developed in the past were quite large.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was the largest with an area of 470 km². The Hwanggumpyong and Wihwado Economic and Trade Zone, which is the smallest, also have an area of 28 km². These special economic zones generally include various sectors such as production, processing, commerce, finance, and tourism.

EDZs, on the other hand, are generally smaller in size. The area of most EDZs is less than 5 km². Also, the target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is often around \$100 million. Unlike SEZs that cover a variety of sectors, many EDZs are specialized in sectors such as industry, agriculture, tourism, and export processing.

The map shows North Korea's SEZs and EDZs that have been developed until today. You can see that there are many economic development zones. Also, economic development zones are built in all provinces. The number of EDZs varies from province to province, with as few as two and as many as five or six.

If you look at the names of the EDZs, some are nam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but others are named like Songrim Export Processing Zone, Cheo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Cheongsu Tourism Development Zone, Eorang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and Eunjeong High-tech Development Zone. These names were given according to their specialized fields.

Another characteristic that sets EDZs apart from SEZs is that they can be developed locally. All SEZs were promoted by the North Korean central government, but EDZs could be promoted by local provinces.



Names of the development zones on the map are divided into red ones and green ones. Looking at the description at the upper left corner, the red color indicates the central level and the green color indicates the local level. You can check that there are more local-level EDZs than central-level EDZs, with 9 central and 19 local levels.

The development of the EDZs led by provinces is meaningful in that they were able to attract foreign capital by utilizing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each province.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tolerated the local-led development plan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capacity and information to develop multiple small economic zones.

The third characteristic of the EDZs is that North Korean companies becam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Existing SEZs were focused on attracting foreign companies, but in the case of the EDZs, North Korean companies were also allowed to participate. If North Korean companies are located in the development zone, the economic zone will no longer exist as an 'island' separated from the surrounding area but will affect its surroundings as well.

Like this, the Kim Jong-un regime pursued the EDZ development project that wa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EZ and looked forward to attracting foreign capital. However, as I mentioned earlier, the EDZ development policy failed to achieve tangible results due to the strengthened sanctions.

By the way,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have attracted a lot of investment even if there were no sanction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doubt, but I will only look at two major ones.



First, North Korea is not giving overseas investors enough confidence that their assets invested in North Korea can be protected. The laws of North Korea guarantee that investment assets would be protected. However,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not specific, so investors cannot be sure of them. Also, there are precedents that North Korea didn't properly protect investment assets, so it is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to actively invest in EDZs.

Another reason is that foreign investors may also question whether they can make a profit by investing in North Korea's EDZs. There are very few cases that succeeded in making a profit after investing in North Korea.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the only successful case. Howeve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able to generate profits because it was backed by a lot of support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by referring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se.

In additio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stipulates that investors are requir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he investment area. Under a situation where generating profits is unclear, foreign companies are not likely to pay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invest in the zone.

Let's summarize what we have learned. This lecture is on the third topic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and we discussed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First of all,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til the 1990s. Trade between socialist countries in the past was conducted through trade by agree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rade between market economy countries. They decided on trade terms and quantities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governments. North Korea benefited from this trade with socialist countries.

However, as the socialist bloc collapsed in the late 1980s, North Korea's trade also changed. It started to trade in a market transaction method instead of the trade by agreement. The state used to monopolize the trade, but as the economy deteriorated, the scale of the smuggling trade increased as residents started smuggling to survive. This situation continued after the 2000s.

Entering the 2000s, North Korea's trade volume has been on the rise until the mid-2010s. In particular, North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quite rapidly until 2013-2014 after entering the 2000s, and I mentioned two main reasons. First, North Korea implemented a policy of allowing trade expansion. Second,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were created for North Korean exports.

Another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trade is that it has continuously recorded a trade deficit of around \$1 billion since the 2000s. I said this was possible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acquiring additional foreign currency through illegal exports,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nd remittances from workers dispatched overseas.

Next, we analyzed North Korea's exports and imports in more detail in the 2010s. We looked at exports first. The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s in the 2010s was the result of strong coal and clothing exports. Coal exports soared because the import demand in China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at rapidly increased international prices.



Clothing exports increased because labor costs rapidly increased in China and many Chinese companies tried to utilize the low-wage labor of North Korea. However, exports were focused on primary commodities such as coal and clothing or simply processed goods, so there was no qualitative improvement. Rather, it showed a qualitative decline.

We analyzed imports based on BEC (Broad Economic Categories) and categorized them into primary goods, intermediate goods, consumer goods, and capital goods.

As for capital goods, trucks, communication devices, and computers have been imported a lot since 2010. As for intermediate goods, the import volume increased by 70% between 2010 and 2014, and the biggest reason was the import of textiles and fabric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strong export of clothing. We also confirmed that imports of consumer goods generally increas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10s.

The impact of this expansion of foreign trad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could be divided into three aspects. First, it helped increase production. Increased exports helped boost production as well as imports of capital goods, primary products, and intermediate goods.

Second, it also helped to improve consumption levels. The increase in exports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purchasing power, and an increase in imports of consumer goods helped to improv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onsumption. In addition, increased imports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helped to expand consumption through the production of domestic products.

Third, it promoted marketization. Increased imports of mobile phones, trucks, and buses contributed to the vitalization of the market by circulating market information quickly and promot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people.



Lastly, we looked at North Korea's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North Korea has attempted to attract foreign compan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EZs and EDZs, referring to the case of China. The Kim Jong-il regime promoted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It developed five SEZs, but only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successful, and the others were not successful.

The Kim Jong-un regime promoted the development of EDZs instead of SEZs. EDZs are different from the SEZs under Kim Jong-il's rule. EDZs were smaller in scale and specialized in fields such as industry, agriculture, tourism, and export processing. The regime allowed local-led development and enabled active participation by North Korean companies.

Nearly 30 economic development zones have been designated, but they failed to attract investment. Even though EDZs were not successful under the strengthened sanction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y would have been successful without sanctions. It's because companies are not sure whether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protect their assets and whether they can make profits.

Let me wrap up my lecture here. In the seventh lecture, we will take a look at North Korea's industry, the fourth topic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If you organize what we learned today, it will help you better understand future lectures. I'll see you in the next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6周

2000年代以后的朝鲜经济:对外经济关系

6-1

1990年代为止朝鲜对外经济关系的特点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朝鲜经济的昨天和今天》课程的洪制焕。本讲是第六讲,以"2000年代以后的朝鲜经济:对外经济关系"为主题进行。

通过前两讲,我们了解了2000年代以后的朝鲜经济。在第4周的课程中,我们了解了经济改革,在第5周的课程中,我们了解了市场化。通过这两讲,确认了2000年代以后朝鲜经济经历了怎样的变化。

本讲是2000年代以后观察北朝鲜经济的第三个内容,了解朝鲜的对外经济关系。在对外经济关系中,尤其要聚焦对外贸易。

首先来看一下截止到1990年代朝鲜对外经济关系的特征。接着,在纵观2000年代以后朝鲜的对外贸易后,将具体分析2010年代朝鲜的进出口情况。然后将讨论扩大对外贸易对朝鲜经济产生的影响。

在朝鲜的对外经济关系中,对外贸易占很大比重,但除此之外也存在其他领域。因此,在了解对外贸易之后,最后就吸引外资问题,了解一下朝鲜推进经济特区和经济开发区的开发经验。

参考一下,在第8周的课程中,我们将考察对朝制裁。可以说,对北制裁的核心在于控制朝鲜的出口和进口。因此,在讨论对朝制裁时,也不能不谈论有关制裁的出口和进口。

考虑到这一点,本讲尽量不涉及制裁相关事项。这一讲大致以2015年前后的情况为中心,观察朝鲜的对外贸易。

可以说朝鲜的对外经济关系中,对外贸易是窥视朝鲜经济的重要渠道之一。原因主要有两个。



首先, 朝鲜一直主张建设独立经济, 实际上朝鲜的贸易依存度与其他国家比较相对较低。但是可以说, 对外部门在朝鲜经济中所占的重要性程度并不低。

特别是进入金正恩时代后, 在加强制裁之前, 贸易规模大幅增加, 对外部门所具有的重要性进一步增大。随着制裁的加强和为了防止新冠病毒的流入而封锁国境, 进出口规模大幅减少, 朝鲜经济大幅恶化, 这就充分说明了这一点。

第二个原因与对外贸易相关, 与其他领域相比, 可以确保获得相对丰富和可靠的统计数据。我经常说, 关于朝鲜经济的统计非常有限。

但是在贸易部门, 虽然不是朝鲜制定的统计, 但是利用与朝鲜进行贸易的国家, 主要是中国制定的统计, 一定程度上可以掌握朝鲜的贸易情况。因为朝鲜的出口在中国被记录为进口, 朝鲜的进口在中国被记录为出口, 如果有中国对朝鲜的贸易统计, 就可以掌握朝鲜的贸易实态。

再加上贸易统计可以根据具体品种类别进行讨论, 因此可以进行更加具体的分析。从朝鲜出口的产品或进口的产品来看, 可以了解朝鲜产业、与朝鲜居民消费生活相关的各个方面。

这样一来对外贸易成为窥视朝鲜经济的重要渠道, 利用贸易统计等进行了很多研究。本节课以这些研究成果为基础, 了解一下朝鲜的对外经济关系。 那么正式开始讲课吧。

在观察2000年代以后的情况之前, 首先以对外贸易为中心, 了解一下截止1990年代朝鲜对外经济关系的特点。 学习这一时期的贸易方式将对大家理解2000年代以后的情况有所帮助。

过去社会主义国家的对外经济关系是受限制的。在冷战形势下, 主要在社会主义国家之间进行贸易, 由于社会主义国家的商品生产能力下降, 无法生产出高质量的商品, 贸易往来并不活跃。

朝鲜也一直追求极端的独立经济路线, 因此对外贸易的比重并不大。但是, 对外贸易在朝鲜经济中并不是不重要的。 有必须进口的品种。 就是机械设备和燃料。



在前面第3周的课程中曾经提到过，1970年代朝鲜从西方国家以政府借款形式引进机械设备时，遇到了石油危机，受到了外债问题的困扰。但这多少有些例外的成分，朝鲜主要从中国、苏联、东欧等社会主义国家进口。

如果要进口经济所必需的品种就需要外汇，所以也要出口。那么，朝鲜主要出口了哪些产品呢？与其他社会主义国家一样，因为朝鲜商品生产能力低下，所以主要出口简单商品。

例如，矿物或农产品、水产品等初级产品，以及将矿物简单加工制成的产品。稍后将再次说明，这些出口产品的构成直到最近还没有明显改善。

之前说过，在冷战状况下，主要在社会主义国家之间进行了贸易。但是，这种社会主义国家间的贸易形式不同于市场经济体制下的国家间交易。这是通过政府间协商决定交易条件或数量等的方式。也就是说，以政府间达成协议的价格进行交易，而不是市场价格。这种贸易方式叫做协定贸易。

在这种情况下，贸易的达成可能有利于某一个国家。例如，如果中国高价进口朝鲜物资，并向朝鲜低价出口本国物资的话，朝鲜就会获益。这可以看作是一种援助，所以也被称为援助性贸易。实际上，朝鲜通过这种贸易从社会主义国家那里得到了实惠。

在这种情况下，随着1980年代末社会主义圈的崩溃，朝鲜接受的援助性贸易越来越减少。苏联解体的影响最大。特别是朝鲜从苏联和中国进口石油和焦炭，从苏联的进口急剧减少。

从而导致运输燃料短缺，化肥和钢铁等生产减少，影响了工业生产。正如上一讲中所介绍的那样，这是朝鲜经济在1990年代陷入危机的原因之一。

进入90年代以后，在经济危机中对外贸易也萎缩了。在这种情况下，出现了两个方面值得关注的变化。

第一，最重要的贸易对象中国的立场发生了变化。他们开始要求以市场交易方式进行交易，而不是此前一直进行的协定贸易方式。本来就没能从苏联那里得到援助性贸易，经济困难也加剧的情况下，朝鲜很难同意。



所以，朝中贸易并没有全部转变为市场交易方式。特别是原油，中国以政府借款形式给，以后再减免的方式达成交易。 朝鲜从中国进口的原油现在也以相似的方式进行。

其次，走私贸易大幅增加。本来朝鲜的对外贸易由国营贸易公司全权负责，贸易是由国家垄断的体制。

但是，随着经济困难加剧，居民们不得不自己寻找出路，朝鲜和中国边境地区的居民越过国境到中国卖货，购买粮食等，开始了走私贸易。状况变得困难的企业也是如此。 试图通过非正式渠道进行贸易来获得收益。

这一时期增加的走私贸易此后似乎也呈现出增加的趋势。由于走私或非正式贸易的特性，很难掌握其准确规模，但据推测其规模相当大。

本节课回顾了1990年代为止朝鲜对外经济关系的特点。

下一节课我们将对2000年以后的朝鲜对外贸易进行概括性的考察。



6-2 2000年以后朝鲜对外贸易概况

各位同学，大家好。上一节课我们了解了截止到1990年代朝鲜对外经济关系的特点。本节课我们来概括地了解一下2000年代以后朝鲜的对外贸易。

2000年代以后，国家垄断贸易的局面依然存在。作为参考，在朝鲜国营贸易公司分配了被称为“瓦克”的进出口配额进行对外贸易，将赚取的外汇中的一部分上缴上级机关。

但与以往不同的是，贸易往来大多采用市场交易方式。但是，原油进口在2000年代以后，与之前所说的相同，以稍微例外的形式进行了交易。

那么2000年以后朝鲜的贸易规模发生了怎样的变化呢？首先从整体趋势来看一下。

该图显示了2000年代以后朝鲜的出口和进口以及贸易收支的趋势。作为参考，图中显示的统计中并没有反映南北交易。从整体来看，出口和进口均在2000年以后呈增长趋势，2010年代中期以后呈下降趋势。

在出口方面，2000年仅略高于5亿美元，此后稳步增长，2010年达到15亿美元，2013年增至32亿美元。但是以2013年为顶点后呈现减少趋势，特别是加强对朝制裁的2017年以后急剧缩减。

这次来看一下进口。进口在2000年代初为15亿美元左右，到2010年左右增加到25亿美元左右，2014年接近45亿美元。特别是进入2010年代后，迅速增加的势态十分引人注目。

进口也在此后有所减少，与出口一样由于加强制裁，从2018年开始减少幅度增大。但是减少幅度比出口小。正如刚才所说的，制裁后的这种变化，我们将在第8周的课程中详细介绍。

但是从图上看，朝鲜的贸易收支一直处于赤字状态。加强制裁后，赤字规模超过20亿美元，在此之前约为10亿美元左右。



以年贸易规模超过1万亿美元的韩国为标准，10亿美元的赤字可能只是微不足到的规模。但是考虑到朝鲜的贸易规模大的年份也没能超过80亿美元的标准来看，每年都会出现相当大规模的赤字。

关于图片，我们来看几点问题。

第一点，朝鲜的贸易规模在进入2010年代后，从2013年到2014年左右的时间增长得相当迅速。原因是什么呢？考虑到出口增加，进口增加也是可能的，我们将把重点放在出口上，分为对内因素和对外因素来考察。

首先，对内因素就是实行了允许扩大贸易的政策。在金正恩执政初期，朝鲜采取了贸易自由化·分权化的措施。例如，以前只有贸易公司才能进行贸易交易，现在只要得到许可，任何机关、企业都可以进行贸易交易。另外，还放宽了允许贸易交易的条件，赋予了贸易交易当事人部分决定贸易价格的权限。

这次我们来看一下对外因素。2010年代贸易增加的大部分与朝中贸易的扩大有关，因此将焦点放在朝中贸易上来看，随着中国经济快速增长煤炭等进口需求增加，中国人工费快速上涨委托加工交易需求增加，由于中国需求增加导致国际原材料价格上涨等都是可以列举的事例。关于这个问题我后面再说。

第二点，那么从2000年代初开始呈现增加趋势的朝鲜贸易规模为什么在2013年~2014年达到顶点后开始减少的问题。从图中可以看出，朝鲜的出口在2013年、进口在2014年创下最高值后正在减少。也就是说，在加强制裁之前，朝鲜的贸易就开始减少。原因是什么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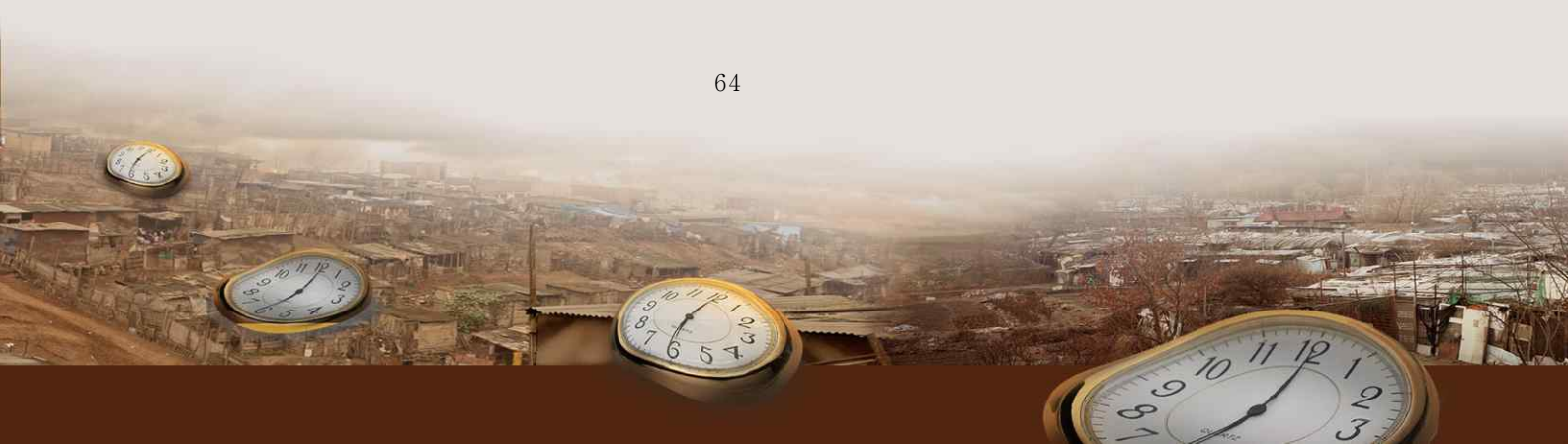
先是当时朝鲜的贸易自由化、分权化动向仍在继续。因此，应该认为与对外因素有关。据判断，这是因为中国经济呈现出放缓的趋势，随着中国环境问题的出现，中国煤炭等矿物进口需求减少，受此影响，国际原材料价格也下降。

第三点是朝鲜如何长期维持贸易收支赤字状态的部分。可以说这是因为朝鲜通过其他对外经济关系获得了外汇。



也就是说, 朝鲜除了正式贸易外, 还通过互市贸易、武器类及重金属等非法出口、渔业权销售、海外建设事业完成、海外派遣劳动者寄来的汇款、出口回扣等多种渠道获得了外汇, 最终用这样获得的外汇抵消了贸易收支赤字。对于这些多种外汇获取途径, 由于时间关系将省略说明。

现在为止, 我们了解了2000年代以后朝鲜贸易的趋势和由此显现的特征。下节课我们将以2010年代的情况为中心, 更具体地了解出口和进口的变化。 2010年代与中国的贸易占朝鲜贸易的90%以上, 因此将以朝中贸易统计为中心继续进行讨论。



6-3 2010년대朝鲜의进出口分析

各位同学们，大家好。上节课我们了解了2000年代以后朝鲜贸易的趋势和由此显现的特征。本节课以2010年情况为中心，对进出口的变化进行更具体的探讨。

先来看出口。图是朝鲜对华出口按产业划分后显示的内容。由此可见，矿业和制造业部门的出口增长势头非常明显。矿业出口额从2010年的6.8亿美元增长到2013年的18.4亿美元，3年间增长了10多亿美元，增长了近3倍。但此后有所减少，2015年仅为13亿美元。

就制造业而言，出口规模从2010年的4.9亿美元增加到2014年的11.9亿美元，短短4年间增长了2.4倍。虽然2015年有所减少，但与矿业相比变化幅度较小。

像这样，2010年代初期矿业和制造业部门的出口增加是煤炭，其中是无烟煤和服装出口呈现出良好势头的结果。如图所示，朝鲜对华煤炭出口规模和对华服装出口规模的趋势。

煤炭出口额在2010年为4亿美元左右，2011年猛增到11.5亿美元，2013年达到13.9亿美元的最高值后正在减少。服装出口额从2010年的1.9亿美元稳步增长，2015年达到8亿美元，是2010年的4倍。

从2010~2015年间煤炭出口对矿业出口增长的贡献率来看，即求煤炭出口增长额与矿业出口增长额的比值的话均超过100%。也就是说，煤炭出口增长规模大于矿业出口增长规模。

同样，服装出口对制造业出口增长的贡献率为97%。这意味着2010年代朝鲜矿业和制造业部门的出口增加是煤炭和服装出口激增的结果。

那么煤炭和服装出口激增的原因是什么呢？虽然是之前大略说过的部分，但在这里我会更具体地进行讲解。



首先从煤炭开始看。随着中国经济的快速增长，中国国内煤炭进口需求增加。 朝鲜主要出口的无烟煤，2000年中国从多个国家进口了21万吨，到2010年初期，中国将进口3000万~4000万吨。

10多年来，中国无烟煤进口规模增长了近200倍。在经济规模较大的中国，如果需求这样增加的话，无烟煤的国际行情也会受到影响。

图为中国无烟煤进口价格走势。

2000年是10美元左右，呈上升趋势，2010年代初期达到100美元左右。10多年来，无烟煤的价格上涨了近10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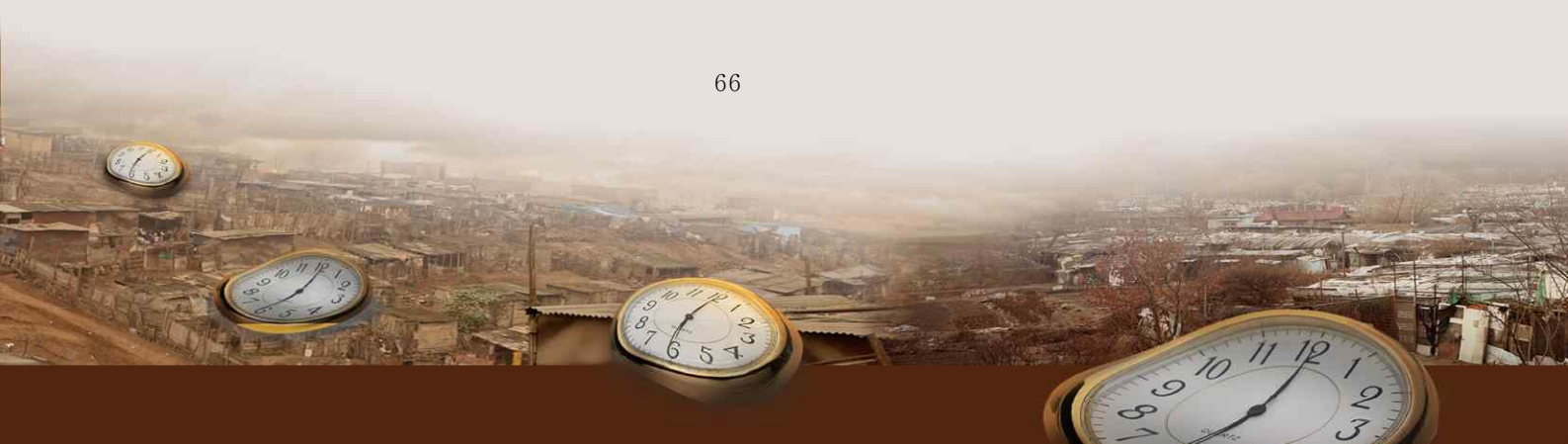
结果，中国无烟煤需求激增，因此无烟煤价格迅速上涨，与中国接壤、无烟煤储量丰富的朝鲜能够增加出口，结果煤炭出口额激增。

这次我们来看一下服装出口。服装出口增长与中国国内劳动力成本快速上升有关。 本表是中国主要地区和朝鲜开城工业园区的最低工资比较的结果。 从表上看2005年开城工业园区为50美元，比中国东北三省，即辽宁、吉林、黑龙江的平均值高出近40%。

但此后，中国国内的工资水平上升相对较快。从表上看，2007年东北三省最低工资开始超过开城工业园区最低工资，此后差距越来越大，2015年上升到开城工业园区近3倍的水平。

而且，众所周知开城工业园区在朝鲜的工资水平相对较高。因此，实际上朝鲜和中国之间的工资水平差距比这还要更大。

随着中国国内工资的迅速上涨，中国企业将目光转向海外，进入2010年代后，积极利用北朝鲜的低工资劳动力进行服装委托加工生产。进入2010年代以后，朝鲜服装委托加工生产增加，可以说与2010年的5.24措施有关。



2000年代南北经济合作活跃的时期，有很多朝鲜企业与韩国企业进行委托加工交易。但是，2010年3月发生了天安舰被袭事件。这次事件牺牲了46名海军官兵。

对此，韩国政府通过5.24措施中断了除开城工业园区以外的所有南北经济合作。由此，一直以来与韩国企业进行委托加工交易的朝鲜企业开始寻找新的客户，与中国进行交易。

像这样，2010年代初期朝鲜的出口是煤炭和服装出口的好势头，在数量上大幅膨胀。

那么，在出口质量方面也有改善吗？

出口质量是否得到改善，可以通过出口产业是如何构成的来确认出口质量是否得到改善。也就是说，在需要高水平技术的产业中，如果出口增加的话，可以说出口质量得到了改善。

图片是按照出口产业的技术水平分类朝鲜制造业部门的出口。产业分为高端技术、中高端技术、中低端技术、低端技术四大类。例如，在半导体、航空等产业实现出口的话将被归类为高端技术，在食品、服装、木材等产业实现出口将被归类为低端技术。

从图中可以看出，2010年以来，低端技术产业在出口中所占的比重呈快速增长趋势。低端技术产业所占比重由2010年的53.6%提高到2015年的85.7%，五年内提高了32.1个百分点。

相反，下面技术水平稍高的中低端技术产业的比重从同期的37.8%下降到8.1%，下降了近30个百分点，中高端和高端技术产业比重非常低，变化不大。

现在看到的是制造业出口的分析结果。但是，比起制造业，朝鲜矿业的出口比重更高。因此，还要考虑矿业的出口，矿业的出口产品多为初级产品，同样不要求高水平的技术。

综上所述，进入2010年代后，朝鲜的出口迅速增加，但出口质量水平不仅没有改善，反而出现了恶化的倾向。以初级产品煤炭和需要低水平技术的商品——服装为中心增加出口，可以说这种质量下降是不可避免的。



这次我们分析一下进口。进入2010年代后，出口增加，外汇情况有所改善，进口也随之增加。那么，主要进口了什么用途的品种呢？

图片是2010年~2015年朝鲜对华进口按使用用途分类(BEC: Broad Economic Categories)的资料。在对图片进行说明之前，先说一下按使用用途分类的概念。

按使用用途分类，顾名思义，就是以该产品将用于哪里为标准，对进口产品进行了分类。根据这些标准，进口产品可分为初级产品、中间材料、消费品和资本货物。

初级产品或中间材料大体上可以看作是用于工业生产。塑料、钢铁、肥料、燃料、机械零件等属于此类。消费品可以视为无需进一步加工即可作为消费用途销售的商品。

衣服、鞋子、化妆品、电视、冰箱等家电产品就属于这一类。而资本货物包括机械设备、工业运输装备等。

那么，我们来看一下进口的整体构成。从各年度来看，中间材料所占比重最大。其次，是2010年代初期初级产品较多，2013年以后消费品所占比重更大。

从增加量来看，中间材料的进口增加最多，其次是消费品的进口增加最多。资本货物进口规模也呈现增长趋势，尤其是图中未显示，但与2000年代相比，出现增长明显。2010-2015年，年均进口金额为5.8亿美元，2000年代为1.2亿美元。与2000年代相比，增长了近5倍。

那么，我们来分别详细地了解一下。我先看看资本货物。

如图所示，2010年~2015年朝鲜主要对华资本货物的进口额累计，从进口额最大的品种开始显示。货车进口额最多，高达7.35亿美元，其次是手机等通信设备、电脑等自动资料处理器的进口额。

此外，建设机械、矿业用机械、电力相关设备等进口也相对较多。关于资本货物进口中出现这种局面所具有的意义，将在后面予以说明。



这次我们合算一下初级产品和中间材料。初级产品和中间材料用途相差不大，一起看也无妨。如图所示，将初级产品和中间材料细分为工业食品、工业材料、燃料和部件。

由此可见，2010年至2014年期间，中间材料进口规模大幅增长。算一下的话，出现了70%左右的增加。增长最多的是工业材料。从2010年的7.55亿美元增至2014年的14.23亿美元，增加到近两倍。工业原材料进口增长最多的主要原因是服装出口形势好转，用于服装委托加工的纤维、纺织品进口大幅增加的缘故。

正如前面所说，朝鲜的服装出口是以委托加工方式进行的，因此出口越多，中间材料的进口也就越多。计算一下的话，从2010年到2015年，工业材料进口增加部分中45%左右是因为纤维、纺织品进口增加的缘故。

最后再来看一下消费品。所图所示，将2010年~2015年朝鲜的消费品进口细分为家用食品、耐用消费品、准耐用消费品、非耐用消费品。耐用消费品是指像家具、家电产品一样长期使用的消费品，非耐用消费品是指短期使用的消费品。

从图片上看，消费品进口也呈现出和中间材料一样的态势。截止到2014年快速增加，2015年开始减少。从家用食品、耐用消费品等细分项目来看，大体上也出现了相似的现象。

从数字上看，家食品进口规模从2010年的1.4亿美元增至2014年的3.6亿美元，增长2.5倍以上，耐用消费品从2010年的8.500亿美元增至2014年的1.85亿美元，增长两倍以上。

本节课我们对2010年代朝鲜的进出口分析进行了考察。下一节课我们将了解这种对外贸易的扩大对朝鲜经济的影响。



6-4 扩大对外贸易对朝鲜经济产生的影响

各位同学，大家好。上一节课我们详细地了解了2010年代朝鲜的进出口分析。本节课我们来看一下对外贸易扩大对朝鲜经济的影响。

朝鲜的贸易从2000年代开始，特别是进入2010年代以后更是大幅度增长了。那么这种对外贸易的扩大对朝鲜经济产生了什么样的影响呢？大致可以分为三个方面来看。

首先，贸易的增长将有助于生产的增长。2010年代初期，朝鲜经济虽然缓慢但稳定增长，其主要原因之一就是对外贸易的扩大。

贸易增长助力生产增长的途径主要有两种。一旦出口增加，在生产出口产品的过程中会产生增产效果。但是根据出口品种，这个效果的大小存在差异。

从朝鲜的主要出口产品来看，煤炭等矿物出口时，这种效果非常明显。另一方面，对于服装出口来说，增产效果并不明显。这种差异是由于服装是以委托加工方式生产的缘故。

委托加工时，为了生产出口商品，从中国进口纤维。因此，可以说服装出口达成的生产只是出口额减去中间材料进口额的部分。例如，朝鲜出口了8亿美元服装，为此进口了5亿美元的中间材料，那么实际生产增加不是8亿美元，而是差额3亿美元。

增产效果不仅可以由出口产生，还可以由进口增加产生。增加资本货物进口对提高朝鲜产业设施的生产率有很大的帮助。朝鲜长期向往独立经济，试图发展机械工业等，但资本货物生产能力仍然大幅下降，因此资本货物进口显得尤为重要。

初级产品或中间材料的进口增加也会有助于提高生产。产业所需的资源中，朝鲜没有的也很多，而且即使有资源，由于技术不足而无法生产出优质的中间材料，通过进口可以弥补。

第二，贸易增加对朝鲜居民消费水平的提高也有帮助。如果出口增加，居民收入提高的话，购买力就会提高。



此外，消费品进口的增加也有利于消费水平的提高。消费品进口增加时，不仅消费品的供应量增加，也有供应比朝鲜产品质量更优商品的好处。另外，供应的品种多样化也有助于提高消费水平。

前面曾讲过，资本货物和中间材料的进口增加可能会导致生产增加。但是，通过这样生产的部分商品可以供应国内用于内需。这也同样有利于扩大居民消费。

实际上2010年代朝鲜居民的消费水平整体上得到了改善。对此，我将在第10周的课程中详细讨论。

扩大对外贸易对朝鲜经济影响的第三点要说的是增加对外贸易促进了市场化。

正如上讲所述，从1990年代开始的朝鲜市场化在2010年代也取得了更大的进展。市场化之所以取得如此进展，通信手段和运输手段的扩大和普及起到了重要作用。

而且可以说，这是因为手机、货车、公交车等的进口增加才有可能实现。

2010年代手机进口大幅增长。如图所示，显示了从2001年开始从中国进口的手机数量，从2010年到2017年之间大部分都是进口的。截止到2015年，2010年代大概进口了440万台左右。

随着手机的普及，信息流通更加活跃，交易所需的费用在经济学上称为交易费用。可能会产生费用降低的效果。而且，这会产生促进居民们私营经济活动的结果。

另外，货车、公交车等的进口增加有助于促进商品和人的流动，激活市场，有助于使市场在全国范围内统一。

本节课我们了解了扩大对外贸易对朝鲜经济的影响。下节课我们将考察朝鲜的经济特区·经济开发区的开发推进和成果。



6-5

朝鮮推進經濟特區·經濟開發區的开发推進和成果

同学们，大家好。上一节课，我们了解了扩大对外贸易对朝鲜经济的影响。

本节课我们来看看朝鲜的经济特区·经济开发区的开发推进和成果。

到目前为止主要考察了对外贸易方面的内容。但是，在观察朝鲜的对外经济关系过程中，不得不说朝鲜为了吸引外资做出了自己的努力。虽然这种尝试还没有取得明显的成果，但我们有必要了解朝鲜为了吸引外资做出了怎样的努力。

朝鲜努力吸引外资是模仿中国改革开放初期经验的形式。不是开放朝鲜全境，而是以优先开放经济特区这一特定地区的形式吸引外资。这是为了经济发展需要的开放，但另一方面也有可能成为朝鲜体制的威胁因素。

如果只开放特定地区，仅在该地区制定有利于外国企业活动的制度性装置，将其打造成一个"岛"，在吸引外国企业的同时，可以防止资本主义经济秩序扩散到朝鲜其他地区。朝鲜可能是考虑到这方面才推行了经济特区开发战略。

在金正恩政权上台之前，从图片中可以看出，朝鲜共设置了5个经济特区。经济特区大体上都把焦点对准了吸引中国或韩国的投资上。

最先设立的是咸镜北道的罗津·先锋经济特区。罗津先锋经济特区成立于1991年，旨在发挥中转贸易、出口加工、旅游、金融中介等功能。但是，与朝鲜制定的招商引资目标相比，业绩微乎其微。在2002年实行7.1措施后，开发了新义州特别行政区、开城工业区、金刚山观光区等三个经济特区。

新义州特别行政区在立法、司法、行政方面赋予自治权等，从朝鲜的标准来看，以相当破格的形式制定了开发计划。但是，被任命为新义州首任行政长官的华侨企业家杨斌在中国因逃税的嫌疑被捕，被判处有期徒刑18年，计划被迫中断。



开城工业区和金刚山观光区计划由韩国资本单独开发，实际投资也得以实现。但是，金刚山旅游事业发生了游客被枪击死亡事件，2008年8月以后中断，开城工业园区事业在朝鲜进行第4次核试验的2016年初中断。对此，我们将在第12周的课程中更为详细地了解。

金正恩政权初期，朝鲜对经济特区开发也表现出了积极的态度。特别是积极开展了与中国的经济特区共同开发事业。开发项目的核心区域是现有的罗先经济贸易区和2010年新划定的黄金坪、威化岛经济带。罗先市在2010年升级为特别市。

朝鲜和中国在2012年达成协议，决定推进道门-罗津之间的铁路维修、国境大桥建设、茂山铁矿开发等6个项目，表现出了积极的行动。但是，随着2013年初朝鲜实施第三次核试验，12月主导经济特区开发的张成泽被处决，经济特区开发进入停滞局面。

但是在这种情况下，朝鲜当局除了经济特区之外，还开始着手开发经济开发区。2013年5月制定了经济开发区法，还成立了相关的多个组织。从2013年11月设立鸭绿江经济开发区、万浦经济开发区等13个经济开发区开始，至今已设立近30个经济开发区。

截止到2015年上半年，朝鲜为了吸引经济开发区的投资表现出了相当大的热情。2015年5月在金刚山举行了元山-金刚山国际旅游区投资说明会。但此后经济开发区的开发似乎没有取得大的进展。特别是由于制裁的加强，从2017年下半年开始禁止与朝鲜合作项目，这可能是经济开发区开发未能实现的决定性因素。

可以说朝鲜的经济开发区开发项目虽然是朝鲜当局满怀热情开始的，但并没有取得成果。

但是经济开发区项目与朝鲜之前推进的经济特区在几个方面存在差异。通过这种差异可以确认金正恩时代朝鲜吸引外资战略的变化，让我们进一步了解一下经济开发区开发事业的特点。

首先，经济开发区是小规模的特色经济地带，这一点与现有的经济特区存在差异。过去被开发的经济特区面积相当大。罗先经济贸易区面积最大，可达470平方公里。最小的黄金坪、威化岛经济贸易区面积也达到了28平方公里。而且，这些经济特区大体上涵盖了生产、加工、商业、金融、旅游等多个部门。



相反,经济开发区大体上规模较小。大部分经济开发区的面积在5平方公里以下。另外,吸引外资规模的目标也多在1亿美元左右。而且与涵盖多个领域的经济特区不同,许多经济开发区以工业、农业、旅游、出口加工等领域为特色。

图片是最近开发的朝鲜经济特区和经济开发区。从图片中可以看出,设置了很多经济开发区。另外,经济开发区设置在每个道。每个道都有差异,少则两个,多则五六个。

但是,从经济开发区的名称来看,既有叫"经济开发区"的,也有叫"松林出口加工区"、"清南工业开发区"、"清秀观光开发区"、"渔郎农业开发区"、"恩静尖端技术开发区"等。可以认为他们是根据特色领域而命名的。

经济开发区与经济特区不同的另一个特点是可以由地方主导开发。现有的经济特区都是朝鲜中央政府推进的项目。但是经济开发区在地方也可以推进开发。

再看图片,开发区的名称分为红色和绿色。然后看左上角,红色代表中央级,绿色代表地方级。并且,可以确认中央级为9个,地方级为19个,地方级多于中央级。

像这样,由地方主导开发经济开发区,利用各地方所具有的相对优势吸引外资,从这一点来看十分具有意义。另一方面,由于朝鲜中央政府不具备开发多数小规模经济地带的政策力量和信息,可以说容忍了由地方主导开发的方案。

经济开发区所具有的第三个特点是朝鲜企业可以积极参与和主导参与。现有的经济特区把重点放在吸引外国企业上,对于经济开发区来说允许朝鲜企业来开发。实际上,如果朝鲜企业位于开发区内,经济地带将不再与周边分离,不再是一个"岛屿",对周边也会产生影响。金正恩时代,朝鲜推进不同于现有经济特区的经济开发区开发项目,对吸引外资寄予厚望。但是正如前面所述,在加强制裁的情况下,经济开发区开发政策没有取得可视性成果。

但是,即使说没有制裁,朝鲜的经济开发区开发政策能否取得显著的招商引资成果还是个疑问。如此判断的理由有很多,大体上分两点来看。



首先,不能让海外投资者充分相信自己投资在朝鲜的资产可以得到保护。当然,朝鲜在法律上对保护投资资产这一项进行了保障。但是,相关法律、规定或程序并不具体,从投资者的立场上看很难确信。而且过去也有朝鲜没有保护投资资产的先例,因此很难期待海外投资者积极投资经济开发区。

另一个理由是海外投资者可能会怀疑通过投资朝鲜经济开发区能否获得收益。因为到目前为止,投资朝鲜获得收益的事例极少。

开城工业园区可以说是唯一的成功事例。但是开城工业园区因为有韩国政府的很多支援,所以可以创造收益。因此,其他国家的企业参考开城工业园区的事例决定投资可能有些困难。

而且,从经济开发区法来看的话,投资者直接建设投资地区的基础设施。但是,在能否创造收益并不明确的情况下,支付基础设施建设费用对于海外企业来说投资的可能性并不高。

我来整理一下本讲的学习内容。这一讲是2000年代以后观察朝鲜经济的第三个内容,了解了朝鲜的对外经济关系。

首先,讲述了截止到1990年代朝鲜对外经济关系的特点。过去社会主义国家的贸易是以协定贸易的方式进行的,这与市场经济体制下的国家间交易不同。交易条件和数量等通过政府间协商决定的方式。而且,朝鲜通过这种贸易从社会主义国家那里得到了实惠。

但是1980年代末社会主义圈崩溃后,朝鲜的贸易也发生了变化。现在大部分都是以市场交易的方式进行交易,而不是以协定贸易的方式进行交易。而且,虽然是国家垄断贸易的体制,但是随着经济困难,居民为了维持生计而进行走私,出现了走私规模增加的局面。而且,这种局面在2000年代以后也延续了下来。

2000年代以后,朝鲜的贸易规模到2010年代中期为止呈增加趋势。特别是朝鲜的贸易规模进入2010年代后,2013年~2014年左右增长得相当快,主要原因大致有两个。一是朝鲜实行了允许扩大贸易的政策。还有一个就是形成了有利于朝鲜出口的对外条件。



而且，2000年代以后一直出现10亿美元左右的贸易赤字，这也是朝鲜贸易的特征表象。我说过，这是因为朝鲜通过非法出口、海外建设项目、海外派遣劳动者的汇款等追加获取外汇。

接着对2010年代朝鲜的进出口进行了更为细致的分析。首先，从出口来看，2010年代出口大幅增加是煤炭和服装出口好转的结果。煤炭是中国国内进口需求的大幅增长和国际市场价格快速增长的结果，出口量得以迅速增长。

服装方面，随着中国国内人工费的迅速攀升，想要利用朝鲜低工资劳动力的中国国内企业增加，出口也增加了。但是像这样以煤炭、服装等初级产品或单纯加工产品为主进行出口来看，出口质量并没有得到改善。反而可以说出现了质量下降。

对于进口以朝鲜对华进口的使用用途，即产品将用于何处为标准，以初级产品、中间材料、消费品、资本货物分类的资料为中心进行了分析。

在资本货物方面，2010年以后进口了很多货车、通信设备、电脑等。以中间材料为例，2010年至2014年间进口规模增加了70%，其中最大的原因是服装出口好转，纤维、纺织品进口大幅增加。另外，还确认了2010年代前半期消费品的进口也全面增加。

而且，这种对外贸易的扩大对朝鲜经济的影响大致分为三个方面。第一，有助于增加生产。出口增长也有利于生产增长，资本货物、初级产品、中间材料的进口也同样有利于生产增长。

其次，也有助于消费水平的提高。出口增加可导致购买力提高，消费品进口增加有利于消费量和质的提高。而资本货物和中间材料的进口增加，也通过生产内需产品，有助于扩大消费。

第三，促进了市场化。手机、货车、公交车等进口增加，促进了市场信息快速流通，促进了商品和人的移动，为激活市场做出了贡献。

最后，考察的是朝鲜吸引外资的努力。朝鲜一直参考中国的事例，试图通过经济特区、经济开发区开发来吸引外国企业。金正日时代推动了经济特区的开发。经济特区共开发了5处，但只有开城工业园区取得了成果，除此之外没有取得太大的成果。



进入金正恩时代后，代替经济特区的是推进了经济开发区的开发。经济开发区与金正日时代的经济特区有差异。差异是规模小，在工业、农业、旅游、出口加工等领域具有特色，允许地方主导开发，朝鲜企业可以积极参与等以上几点。

虽然指定了近30个经济开发区，但并没有取得招商引资成果。虽然经济开发区事业在加强制裁中未能取得成果，但即使没有制裁，能否取得成果还是个疑问。理由是能充分相信投资到朝鲜的资产能够得到保护，不能对收益性给予确信等。

这一讲到此结束。在接下来的第七讲中，我们将以2000年代以后朝鲜经济的第四个内容，了解一下朝鲜的产业。

如果各位同学好好整理这一讲的学习内容，将对理解今后的课程会有很大的帮助。那么，我们下一讲见。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은 교역 조건이나 물량 등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형태의 무역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0분

정답 협정무역

해설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하는 협정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역은 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원조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조성 무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02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들이 대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쿼터를 배당받아야 했는데, 이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5분

- ① 워크
- ② 돈자리
- ③ 되거리
- ④ 남새

정답 ①

해설 북한에서 국영 무역회사들은 '워크'라고 불리는 수출입 쿼터를 배당받아 무역을 하고,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상부 기관에 상납했다. 참고로 '돈자리'는 계좌를, '되거리'는 상품을 사서 마진을 붙여 되파는 거래 형태를, '남새'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즉 채소를 각각 의미한다.



03 북한의 무역 규모가 2010년대 들어와 빠르게 증가한 이유가 아닌 것은?

5분

- ① 북한의 무역 자유화 및 분권화 조치
- ② 중국 내 가전제품 수요 증대
- ③ 중국 인건비의 빠른 상승
- ④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정답 ②

해설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무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북한 당국이 무역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에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탄 등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의류의 위탁가공교역 수요가 증가했으며, 중국 수요 증대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04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5분

- ① 7.7 선언
- ② 5.24 조치
- ③ 7.1 조치
- ④ 8.3 조치

정답 ②

해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여 46명의 해군 장병이 희생되자 한국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였다. 이 때 중단된 남북경협은 그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05 다음 중 경제개발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5분

- ① 지방 주도의 개발은 불허
- ② 소규모의 특화된 경제지대
- ③ 김정은 시대 들어와 새로 개발이 추진된 특구
- ④ 북한 기업의 적극적·주도적 참여 가능

정답 ①

해설 김정은 시대 들어와 새로 개발이 추진된 경제개발구는 규모가 작고 특화되어 있으며, 지방 주도의 개발이 가능하고, 북한 기업의 적극적·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특구와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2010년대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20분)

참고

2010년대 대외무역 확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우선 수출 증대,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증대는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증대에 따른 구매력 향상, 소비재 수입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수단과 운송수단 수입 증가는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시장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양문수 외,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이석.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데이터 분석과 그 함의.” 이석 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3.
- 이종규,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한국개발연구원, 2021.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2014.
- 홍제환·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통일연구원, 2021.

